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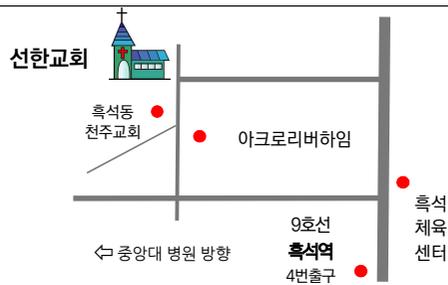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협력전도사 오 호 남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박 희 태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장 로	유 신 웅 (집사장)	500/50 교 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윤 익, 박 영 근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조 계 승, 윤 호 중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행 18:10)

I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

실 천 사 항 지역봉사 전도 / 기도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빌 4:1-7)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 7:14)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67장 (통일찬송가 32장)	
교 독 문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찬 양 과 경 배	205장 (통일찬송가 236장)	
예 배 기 도	조계승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요한일서 4장 7절 ~ 11절	
설 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윤국로 이용규 이용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선한 능력으로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일 오 후	오후 3:00	예배장소 : 본당
	1부 예배	
찬 양	JOY AND	
대 표 기 도	류은영 집사	
말 씬	누가복음 2장 8~14절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자 (임춘배 목사)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2부 성탄절 칸타타		

성탄 축하예배	25일(수)	
	오전 11:0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임마누엘의 약속 (마1:18-23) 임춘배 목사

- | | |
|-------------|---|
| 교회소식 |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성 탄 예 배 일 정** 성탄절 칸타타: 오늘 오후 3시
성탄 전야제: 24일(화) 오후 8시
성탄 축하예배: 25일(수) 오전 11시
※ 25일 수요일예배는 성탄감사예배로 대신합니다.
 - 예 결 산 자 료 제 출** 2019년 결산자료(대상: 교육부서 및 자치회, 영수증 포함)를 오늘 까지 재정부로 (재정부장: 손영삼 집사)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봉사 신청** 2020년도 희망부서 교사 및 봉사부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미제출시 현 봉사부서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는 본당 뒤편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제출 - 사무실 / 문의 - 박영근 장로 (인사위원회)
 - 진 급 수 료 식 및 신 구 입 원 교 체 식** 일시 : 다음주(29일) 2부 예배시
 - 예 배 안 내** 다음주(29일) 오후예배는 부서모임으로 드립니다.
 - 송 구 영 신 예 배** 일시 : 31일(화) 오후 11시
※ 오후 9시부터 신년 축복기도를 시작합니다.
미리 오셔서 기도제목과 헌금약정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오후예배 일정		
날짜	제목	강사
12월 1일	관계의 십자가	권현국 목사
12월 8일	종말론 2강	임춘배 목사
12월 15일	선교사 퇴임예배	강성규 선교사
12월 22일	성탄절 칸타타	드림성가대
12월 29일	부서모임	다 함 께

2019년 성경강론 범위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예레미야 13장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 17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복음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부리가 내리며 터가 굳어져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받은 은혜와 누리는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	--

[가정예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찬송 : '나 주를 멀리 떠났다' 273장(통 331장)

본문 : 창세기 16장 6~13절

말씀 :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신앙 인격은 그 장애물들을 잘 넘어야 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삶이 고단하고 실패했다는 생각에 압도되면 낙심하고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은 충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실망하면 그 사람이 캔슬레 미운 마음이 들어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 공동체에서 이탈한 몇몇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하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갈은 애굽 출신 여종입니다. 그는 사회에서 주목 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라의 주선으로 대리모가 되어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해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후부터는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거기서 사달이 났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입니다. 사라는 참다못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묘사된 사라는 온유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으며 행실이 정결한 여자가 아니라 신경이 날카로운 질투에 가득 찬 여자였습니다.

사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라의 상처와 질투는 젊은 여자를 집에 들여놓기로 할 때부터 배태되어 있었습니다. 사라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기까지에는 오랜 시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 다. 사라는 하갈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사사건건 하갈의 행동을 곱게 보지 않았고 급기야는 눈엣가시 같은 자신의 몸종이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배고는 위상이 달라지는 듯했지만 그의 존재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한 남자의 정식 부인 자리를 놓고 두 여자 사이에 암투가 일어난 결과 하갈의 참패로 결말이 났습니다. 그녀는 여주인인 사라의 학대에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필요할 때면 곁에 두고 필요 없으면 여지없이 차버리는 쓰다 버린 존재였으며,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녀의 치명적인 매력은 '애굽의 잃어버린 에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도망쳐 나온 하갈은 광야를 헤매다가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먹을 것은 없고 물은 떨어진 채 길을 잃고 헤맸습니 다. 그녀는 겨우겨우 광야의 샘물 곁에 왔습니 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물으셨습니다.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하갈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흡사 하나님께서 죄지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과 같습니다. 하갈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앞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삶이 옳은지 한번 돌아켜 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또한 하갈의 선택이 비록 잘못되었을지라도 하갈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것과 하갈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신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신자에게도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때론 우리도 하갈처럼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가서 네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던 우리 형편을 낱날이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요일 4:7-11)

서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본론

1. 하나님을 아는 증거

- (1)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8)
- (2)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을 닮게 됨(7,8)
- (3)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9,10)
- (4)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11)

2. 교훈

- (1)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 (2)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 (3)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마땅히 사랑한다.

결론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엡3:19)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기도	조계승 장로	윤호중
헌금위원	윤국로 이용규 이용재	백미경 서진화 신영문
오후예배 기도	류은영 집사	부서모임

찬양	자비하신 예수여 (찬송가 395장 / 통일 찬송가 450장)
통독	예레미야 8장
본문 내용	본장은 완고한 백성의 비극적 파멸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본장은 여러 개의 내용을 지닌 시들의 복합체로서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이 현실적으로 임박한 상황에서 주로 사용한 애가적 표현들이 언급되어 있다. 내용상 구분하면 철저한 유다의 재난과 결코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의 완고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전반부와(1-12절), 임박한 심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중반부(13-17절), 그리고 예레미야의 동족에 대한 사랑을 하나의 애가로 표현하고 있는 후반부(18-22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생각해보기	
1	<p>유다의 위선적 신앙</p> <p>(1) 1-17절: 완고한 유다를 향한 심판 경고. 스스로 선민이라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에 순응하여 사는 철새들의 본능에 대비시켜 책망하시고 이 원인을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거짓 평안을 전한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지적한 후 온갖 죄악을 다 행하면서도 성전에 있는 한 자신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평안하리라고 확신하며 회개할 줄 몰랐던 완고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북방에서부터 오는 재앙 곧 바벨론 군대를 통해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심</p> <p>(2) 18-22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어떠한 치료제로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다를 위한 예레미야의 애가가 기록됨</p> <p>(3) 죄로 인한 상처가 너무 깊어져 치유될 수 없는 동족의 아픔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죄악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눈물을 흘려야 한다</p>
핵심 단어	7절. 올 때를. 날짐승들이 계절에 따라 자신의 거처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을 말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	--

찬양과 기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장)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p>전라북도 김제에 ‘ㄱ 자 교회’로 불리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역 제일가는 부자였던 조덕삼이 테이트 선교사에게 자신의 집 사랑채를 내주어 예배드리게 한 것이 금산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조덕삼의 집에는 머슴 겸 마부인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조덕삼은 6세 때 부모를 여의고 굶주려 그곳까지 흘러든 이자익을 거두었습니다. 조덕삼은 이자익이 자신의 머슴임에도 그가 공부하도록 돕고 신앙생활도 같이하도록 배려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산교회에서 집사를 거쳐 영수가 되었고, 얼마 후 장로장립 투표에서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때 조덕삼은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을 했습니다. 조덕삼은 전혀 질투하지 않고 자신의 머슴을 장로로 섬겼을 뿐 아니라, 이자익이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덕삼은 그로부터 3년 뒤 장로가 되었고, 신학교를 졸업한 이자익을 담임목사로 적극 청빙했습니다. 그렇게 이자익은 금산교회의 2대 담임목사가 되었습니다. 양반과 머슴의 구분이 분명했던 그 시절 조덕삼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p> <p>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p>
말씀 나누기	누가복음 2:8~20
목상포인트	<p>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선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에 누이신 것과 비천한 목자들이 경배함은 그분이 빈부귀천을 막론한 모든 이의 구세주로 오셨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듣고 순종함으로 응답할 이들에게 약속의 성취를 먼저 알려 주십니다. 목자들은 자기 일에 성실했을 뿐 아니라 들은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순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에 즉각 순종할 때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나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p>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목상	밤에 양 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전한 소식은 무엇인가요?(8~ 12절)
적용하기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요? 복음이 주는 기쁨은 다른 소식이 주는 기쁨과 어떻게 다른가요?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저를 향한 극진한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목자들처럼 저도 말씀에 즉각 순종해 주님 계신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악인의 종말

날짜 : 12월 20일

찬양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송가 63)
통독	예레미야 12장
본문 내용	본장은 전장의 후반부에서 다룬 아나돗 사람들의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암살 음모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다. 저자는 이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항변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사악한 유다 거민들의 비참한 결말을 예언하고 있다. 아울러 심판의 궁극적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임을 약속하고 있다. 이러한 본장은 아나돗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예레미야의 항변을 진술하고 있는 전반부(1-6절)와 아나돗 거민들의 행동을 통한 유다 거민 전체의 재앙을 선언하고 있는 후반부(14-17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장을 통하여 저자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유다의 독특한 위치를 상기시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생각해보기	
1	<p>악인의 형통함의 문제</p> <p>(1) 1-4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여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도록 방관하고 있는지를 질문함</p> <p>(2) 5-17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아나돗 사람들의 박해를 받고 낙심에 빠진 예레미야를 가볍게 책망하시며 아나돗 사람들에게 의한 박해는 장차 그가 당할 고난에 비할 바가 아님을 상기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악한 유다가 잠시 형통하는 듯이 보이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대적의 침입을 받아 유다 땅과 백성들이 유린당하며 황폐될 것이고 또한 유다를 침략한 이방 국가도 심판하시고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심</p> <p>(3)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크게 보지 말고 앞으로 닥칠 더 큰 고난 앞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수 있는 믿음을 키워나가자.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 하려니와 요단 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12:5)</p>
핵심 단어	4절. 슬퍼하며, 주로 죽은 자를 위한 애곡 의식을 나타낸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	--

매일 성경 강독

유다의 파멸

날짜 : 12월 17일

찬양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찬송가 237장 / 통일 찬송가 226장)
통독	예레미야 9장
본문 내용	본장은 유다의 파멸에 대한 애가이다. 특별히 선지자의 거듭되는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역을 일삼는 백성의 어리석음을 독백 형식으로 묘사하면서 궁극적으로 배교한 유다의 최종 상태에 대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본장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철저히 만연되어 있는 뿌리 깊은 죄악상을 토로하는 전반부와(1-9절), 바벨론의 침입과 추방으로 야기될 유다의 황폐함과 그 파멸의 원인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서술하고 있는 중반부(10-16절),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 개의 선언과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설정하고 있는 후반부(17-26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각해보기	
1	<p>배교자의 비참한 종말</p> <p>(1) 1-11절: 예레미야의 애가로, 예레미야를 비탄에 빠지게 한 원인인 백성들의 불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제시함</p> <p>(2) 12-26절: 예레미야와 하나님간의 문답의 형식을 통해 유다가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황폐화될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이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애곡하기를 촉구함. 세상의 지혜나 힘이나 부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끝으로 할례 은 유대인이나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여호와 의 날에 함께 심판하실 것을 예언</p> <p>(3) 인간 지혜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것으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p>
핵심 단어	3절. 악으로 진행하며, 유다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여 더 이상 이웃과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되었음을 의미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	--

찬양	큰 영화로신 주 (찬송가 35장 / 통일 찬송가 50장)
통독	예레미야 10장
본문 내용	본장은 유다를 멸망케 한 죄악의 근본적 뿌리, 곧 우상 숭배의 실상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본장에는 우상 숭배의 무익성이 강조되어 있고, 또한 그러한 행위에 보응하는 심판과 그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가와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본장은 우상 숭배의 무익성을 지적하고 있는 전반부(1-16절)와 임박한 멸망에 대한 선지자의 고통을 다루고 있는 중반부(17-22절), 그리고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후반부(23-25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하여 저자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내재된 근본적인 차이점을 간파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무익성을 논증하는 동시에 유다에 임할 환난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해보기	
1	<p>우상숭배의 헛됨</p> <p>(1) 1-16절: 우상숭배의 무익함을 지적하며 우상이 피조성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웅장한 언어로 선포한 후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우상의 무능력을 비교 제시함</p> <p>(2) 17-25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한 후 유다에 대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예레미야의 비탄어린 애가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시켜 달라는 예레미야의 중보기도가 이어짐</p> <p>(3) 천지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외에 어떤 헛된 우상도 절대로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된다.</p>
핵심 단어	2절. 하늘의 징조를. 해와 달, 별들의 움직임 등 하늘의 특별한 현상을 통해 시대의 징조를 해석하는 이방인들의 점성술을 가리킨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찬송가 8장 / 통일 찬송가 9장)
통독	예레미야 11장
본문 내용	본장에서 저자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로 맹세했던 언약의 율법을 재차 새롭게 언급함으로써 유다의 범죄 행위를 '언약의 파기'라는 측면에서 한층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본장은 언약 조건에 따른 형벌을 묘사하고 있는 전반부(1-17절)와 예레미야에 대한 살해 음모를 언급하고 있는 후반부(18-23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하여 저자는 이전에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킴으로써 현재 유다의 언약 파기의 양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언약, 곧 율법을 상기시킴으로써 이전보다 한층 더 심도 있게 심판의 당위성을 논증하고 있다.
생각해보기	
1	<p>언약을 파기한 유다</p> <p>(1) 1-17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에게 과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간에 맺은 언약의 핵심내용(신27:15,16)을 선포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언약의 내용을 상기케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며 선조들이 언약을 준수치 않음으로 인해 준엄한 심판을 받은 사실을 주지시켰지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이 간곡한 권고를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의 불순종으로 인해 언약을 파기하였고 그 결과 그들에게 언약의 내용대로 저주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함</p> <p>(2) 18-23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나돗 사람들의 살해 음모에서 벗어난 것을 고백하고,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들을 심판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한 사실과 예레미야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나돗 사람들을 보수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함</p> <p>(3) 예레미야가 맨 처음 고향(아나돗)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바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박해가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받게 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써 극복해야 한다.</p>
핵심 단어	5절. 아멘. '확증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인데 그 말뿐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존재와 인격을 믿음을 뜻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